전남도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본격 논의

전남 18곳 등 전국 지자체 중 46% 105곳 '소멸위험지'

인구감소 대응책 한계…삶의 질 향상 위한 사업 발굴을

전남도가 29일 서울 한국재정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중인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범국가적 지원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정토론의 사회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권한대행이 맡았으며, 전남·북, 경북, 충남 등 지역 전문가와 법률·보건복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46%인 105곳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82%인 18곳이 포함돼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고착화된 인프라사업이 아닌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토론회를 통해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를 비롯 농어촌 지역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조금 보조율 차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법안에 반영해 특별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다음달 18일 국회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북도 등 타 시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와 공조해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디지털·그린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함과 동시에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감염병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며 "자본과 사회·문화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해소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도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란 주제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절된 동·서 연결 위해 달빛내륙철도 서둘러야"

광주시-조오섭 국회의원실 토론회…경유지 지자체 등 참여

경제성보다 균형발전 부각…4차 국가철도망 계획 포함돼야

단절된 동·서 연결은 위해선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달빛철도 건설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용섭 광주시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축사를 했고, 이병훈, 양향자, 윤영덕,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양정숙 의원과 광주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는 이 호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가 맡았고 최완석 광주대 교수,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박진홍 균형위 공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호 박사는 "달빛내륙 철도는 1~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왔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방향성에 부합되는 논리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보다는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이 부각되어야 하고, '선공급, 후수요'로 철도건설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달빛내륙철도는 남부경제권 활성화와 중부경제권의 일극 체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호남의 상징인 광주와 대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기 위해서 달빛내륙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달빛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상생을 위한 방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 등에 대한 의견들도 오고갔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를 구간을 최고시속 250㎞ 달려 1시간대 생활권 연결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하고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빛그린산단 체육관 조감도

무등경기장 체육센터 조감도

광주 빛그린산단 체육관·무등경기장 체육센터 본격 건립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개방형 체육관,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 설계작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최근 설계 공모,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2개 시설 설계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빛그린 산단 체육관은 입주기업 근로자, 주민 등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으로 종합건축사 사무소 창, 건축사 사무소 플랜이 설계를 맡게 됐다.

체육관은 연면적 2400여㎡ 크기로 100억원을 들여 지상 1층 주차장, 2층 5레인 규모 유아 풀 등을 포함한 수영장, 3층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한다.

KIA타이거즈 야구팬의 추억이 서린 북구 임동 무등 야구장 부지에 들어서는 체육센터는 진짜노리 건축사 사무소가 설계사로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70억원으로 연면적 2000여㎡, 지상 2층 규모다.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등을 배치한다. 광주시는 2개 시설 모두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2년 4월 준공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7.3% '전국 최고'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이행점검 결과 전남도가 47.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위촉직 여성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점검 당시 위촉을 진행중이던 4개 위원회를 제외한 전남도 소관 위원회 108개 중 102개 위원회가 여성위원 비율 40%이상으로 전체 위원회의 94.4%를 달성했다.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과 관련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 잡힌 참여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이 60%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달성된 6개 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비롯 건축사징계위원회, 전라남도섬가꾸기 자문위원회,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자치분권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등 여성 전문인력 희소분야다. 이 가운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3월 여성 위원 43.8% 위촉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율 향상을 위해 위원회 임기 만료 1개월 전 소관 부서에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도록 안내했으며, 위원회에 적합한 전문 여성 7인력을 발굴해 지원해 왔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전남도 소관 위원회별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며 "앞으로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시동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기반 고부가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선정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광부품 제조기술에 초소형 정밀기계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광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산업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AI) 등과 융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기술이다.

올해부터 3년간 총 99억원(국비 69억·시비 30억원)을 투입해 신규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생산 지원, 기술 사업화, 공정 기술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업 경쟁력 제고 등 광 융합 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핵심 장비가 없어 지역 기업이 시제품 제작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불량률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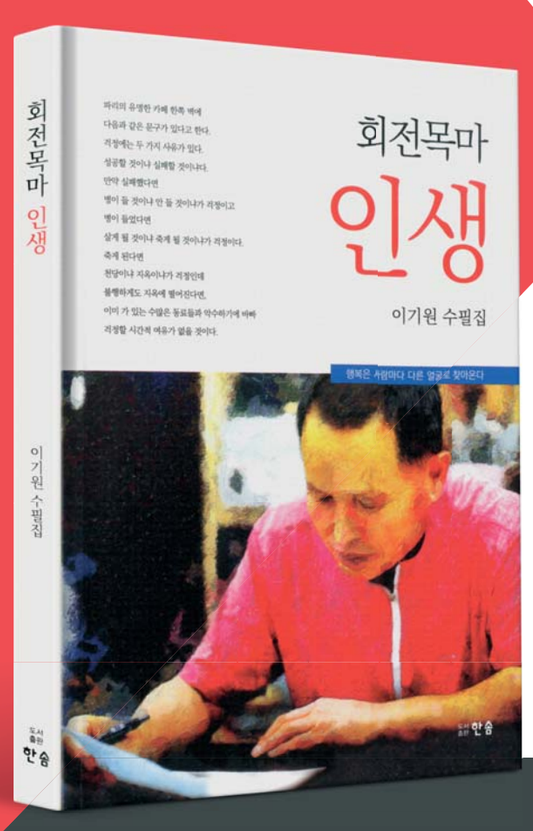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 점 판 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홍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